

친환경 인터넷 신문



## 부천 아트포럼리, '쿤스트페어라인 64' 내한전시

이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5/08/21 12:27)

부천 아트포럼리에서 다음달 1일부터 25일간 국제 미술 협회 쿤스트페어라인64 (Kunstverein 64 e.V.) 이 사진 3인 내한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가의 지역과 지역 간 교류 확장을 의도한 아트포럼리의 이종교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9월 4일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우도 저스크 교수의 강연회 - 독일 현대 미술의 현장성'과 오프닝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우도 저스크교수(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와 이광, 세바스찬 루드비히는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 미술 협회 쿤스트페어라인(Kunstverein 64 e.V.)의 이사진이기도 하다. 독일의 신표현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세명의 작가들은 독일에서 작업한 15점 이외에도 한달간 부천에서 체류를 하며 채집한 이미지들과 드로잉 작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관계자는 전시에 대해 “이번 ‘독·한 쿤스트 very painting’전은 국내 도시별 교류를 넘어 해외 도시(뒤셀도르프와 부천)와의 교류를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대안공간이 지향하는 대안과 해외 비영리단체와의 만남으로 지역과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지역과 국가간의 예술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공간 아트포럼리는 부산에 위치한 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 배’와의 교류 프로젝트로 <이종교배>전을 작년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상호 개최한 바 있다. 기타문의는 대안공간아트포럼리 032-666-5858/ 일요일 휴관/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67-9 [www.artforum.co.kr](http://www.artforum.co.kr)로 하면 된다.

닫기